

10월 31일(월) / 행7-9

▶**내용요약:**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의 설교와 죽음을 볼 수 있다. 스테반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변호한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죄를 스테반이 지적하자 마음에 찔린 백성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인다. 스테반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8장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이를 통한 복음의 전파 과정이 기록된다. 사마리아 지방과 에디오피아 내지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9장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사건을 볼 수 있다. 베드로가 에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행한다.

▶**질문:**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다가 책망을 받은 마술사는 누구인가?(8장)

▶**생각하기:** 스테반의 순교와 함께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8:1).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 오히려 복음전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활발히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11월 3일(목) / 행17-20

▶**내용요약:** 17장에서는 2차 전도여행이 지속되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다.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사역 후에 안디옥으로 복귀하여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다. 19장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성령이 임하신다. 하지만 아데미에 대한 우상 숭배 문제로 소동이 일어난다. 20장은 3차 여행이 마무리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한다.

▶**질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생업은 무엇인가?(18장)

▶**생각하기:** 바울은 정성을 다해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20:24)고 말한다. **복음전도자 바울의 담대한 모습이 도전이 된다!**

11월 6일(주일) / 롬1-3

▶**내용요약:**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복음과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1:17)**는 내용이다. 1장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로 시작하면서 자신의 로마 방문계획을 밝힌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한 것들을 밝힌다. 2장은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명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11월 1일(화) / 행10-12

▶**내용요약:** 10장은 베드로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다.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 사건을 보고하자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안디옥에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바나바가 파송된다. 12장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만 천사의 인도를 통해 밖으로 나온다.

▶**질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곳은 어디인가?(11장)

▶**생각하기:** 고넬료를 소개하는 기록을 보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10:2)”라고 한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경건과 선행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를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고 천사를 보내 그의 집을 구원받게 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고넬료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11월 4일(금) / 행21-24

▶**내용요약:** 21장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된다. 22장에서는 바울이 회심하게 된 과정을 변론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한다. 23장은 바울이 공회에서 변명하나 유대인들의 위협은 지속된다. 24장은 바울이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다.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그의 임기가 끝나기까지 그를 잡아둔다.

▶**질문:** 바울은 누구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가?(22장)

▶**생각하기:** 본문에서 바울은 수차례 자신을 변론한다. 22장은 유대인들, 23장은 공회 앞에서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한다. 그의 반복되는 변론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는 확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Sola Fide(오직 믿음)!**

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구원받는 참된 의인임을 설명한다.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3장)

11월 2일(수) / 행13-16

▶**내용요약:**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는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다. 14장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버가 등에서 전도여행이 지속된다. 15장은 예루살렘회의를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확인한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실라와 함께 떠난다. 16장은 바울이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 옥에 갇히나 큰 지진을 통해 나오게 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주 ()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16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에게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그를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11월 5일(토) / 행25-28

▶**내용요약:** 25장은 바울이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와 만나 변론하고 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26장은 바울이 아그립마 왕 앞에서 변론하고 복음까지 전한다. 27장은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되지만 모두 안전하게 벨리데 섬에 이르게 된다. 28장은 벨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고 로마로 다시 향하여 도착한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담대히 감당한다.

▶**질문:**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26장)

▶**생각하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두 죽게 되었다고 절망할 때, 바울은 가이사 앞에 자신이 서야하기에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은 죽지 않을 것(27:23-24)이라고 한다. 사명자인 바울이 타고 있기에 그 사명자 한사람 때문에 모두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살 수 있다면!!!**

▶**생각하기:** 구원은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3:10)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려준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과연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자!